통일정세분석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2010. 9

KINU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정세분석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2010. 9

여인곤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KINU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 문제제기 ····· 1

2. ‘야로슬라블 포럼’의 개최 배경 ····· 3

3. 푸틴 총리와의 면담 내용 ····· 6

4. 한·러 정상회담과 ‘야로슬라블 포럼’ ····· 9
   가. 한·러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 9
   나. ‘야로슬라블 포럼’의 주요 내용 ····· 11
      (1)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연설 ····· 12
      (2)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 ····· 14

5. 평가 ····· 17

6. 정책적 고려사항 ····· 19

1. 문제제기

○ 수교(1990.9)이후 한・러 관계는 '우호협력관계'(1992.11) ->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1994.6) ->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2004. 9)로 발전되어 왔음.

- 양국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2008.2)이후 경제 분야에서 이해일치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대러정책 목표를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협의체제 강화, 에너지・자원 및 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사업 확대, '2012 APEC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톡) 및 '2014 동계올림픽'(소치) 인프라 구축 참여, 첨단 우주산업 협력 등에 두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분야 경력과 에너지외교 강조, 서울시장 시절 방러 경험 등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대통령(2008.5 집권)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2008.9)를 확립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Yaroslavl Global Policy Forum 2010, 2010.9.9~10)에 참석하여 한・러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음.

- 야로슬라블은 모스크바 북동쪽 250km에 위치한 1000년 고도(古都)임.

○ 본 보고서는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의 개최배경을 고찰하고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Putin) 총리의 면담(9.9) 내용 및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과 세계정책포럼의 주요 내용을 분석・평가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야로슬라블 포럼'의 개최 배경

○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푸틴 전 대통령의 집권(2000.1)이후 러시아 정치는 안정을 회복하였고, 국제고유가에 힘입어 연평균 GDP 성장률은 7%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 정부는 광활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외자유치의 필요성과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경제적 발언권 모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포럼을 운영함.

○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1997년 창설)이 국내외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현재 러시아에서는 11개의 국제포럼이 운영되고 있음.

- 푸틴 대통령 당시에 '바이칼 경제포럼'(2000), '소치 국제투자포럼'(2002),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2004), '블라디보스톡 태평양 경제회의'(2007) 등이 창설됨.[1)]

○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국제포럼들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조직·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이 경제관련 국제포럼이며, 러시아의 국력이나 경제력에 비해 포럼의 수가 과다함.

○ 바흐루코프(Vakhrukov) 야로슬라블 주지사는 야로슬라블시 창건 1,000주년(2010)을 기념하는 세계정책포럼의 창설을 메드베데프 대

---

1) 러시아내 주요 국제포럼 현황에 대해서는 홍완석, "이명박 대통령의 '2010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에 따른 방러 효과 극대화 방안," (2010.8.17)의 <표 1> 참조.

통령(2008.5 집권)에 건의하였음.

- 이 결과, '현대 국가와 글로벌 안보'라는 주제하의 제1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이 개최(2009.9.9)됨.
- 메드베데프 대통령, 소뱌닌(Sobyanin) 부총리, 라브로프(Lavrov) 외무장관, 쿠드린(Kudrin) 경제장관, 사파테로(Zapatero) 스페인 총리, 피용(Fillon) 프랑스 총리,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박사 등 20개국에서 500여명의 정계·재계·학계 인사들이 참가함.

○ 금번에 야로슬라블시 창건 1,0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2010.9.9~10)이 개최되었음.

- 포럼 주제는 '현대국가: 민주주의의 기준과 효율성의 척도'(The Modern State: Standards of Democracy and Criteria of Efficiency)임.
- 포럼은 현대 민주주의 표준을 규정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효율성 정도를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갖고 있었음.

○ 러시아 정부는 국가위상 강화를 위해 이 포럼을 정치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시켜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과 함께 러시아의 2대 국제포럼으로 정착시킬 계획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과 기조연설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가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국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11.11~12)를 앞두고 의장국인 한국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음.

- 경제분야 경력이 풍부하고 에너지외교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초청함으로써 한국의 대러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남・북・러 3각 경협을 모색하고자 함.

3. 푸틴 총리와의 면담 내용

○ 이명박 대통령은 모스크바 도착 직후 차기 대통령(2012~2018)으로 유력시되는 푸틴 총리를 면담(2010.9.9)하고 한·러 관계 발전방향과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음.

- 러시아 경제 현대화, 에너지·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자동차, 과학기술, 교역·투자 협력 등의 문제를 주로 논의함.
-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문제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이 교환됨.
- 이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외교·국방문제, 푸틴 총리가 경제·사회문제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임.

○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더욱 확대·심화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했음.

- 이 대통령은 러시아를 현대화하려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계획들에 대한 지지를 약속함.
- 또한 러시아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 현대화에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양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푸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하였음.

○ 푸틴 총리는 러시아가 한국의 이웃 나라로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 극동 시베리아 개발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양국 간에 구체적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이 대통령은 TSR-TKR 연결을 위해서는 나진-한국 연결문제 논의에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러 3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에너지・자원 협력 문제와 관련, 푸틴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사할린-Ⅱ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고 LNG 등의 구매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시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를 약속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은 시베리아 극동 지역 가스관의 북한 통과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을 제의함.
- 푸틴 총리는 철도와 가스관 연결문제가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되어 있다는데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이외에 푸틴 총리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식(9.21) 참석,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90일 이상 연속 체류금지, 시베리아산 호랑이 3마리의 기증 문제 등에 관한 의견들이 교환되었음.

- 푸틴 총리는 한국 기업인들의 체류금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 검토・개선과 호랑이 기증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함.

○ 이명박 대통령은 푸틴 총리의 2011년 중 방한을 초청하였고, 푸틴 총리는 검토해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 푸틴 총리와의 면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러시아의 유력 경제인들과 '한・러 경제협력 미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러시아 기업가연맹(RUIE)의 쇼힌(Shokhin) 회장, 밀러(Miller) 가즈프롬(Gazprom) 사장, 모르다쇼프(Mordashov) 세베르스탈(SeverStal) 사장, 메첼(Mechel) 그룹의 쥬진(I. Zyuzin) 회장 등 러시아를 대표하는 유력 경제인 12명이 참석함.
- 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경제현대화 5대 분야(① 에너지 효율화, ② 원자력, ③ 의료기기・기술, ④ 우주・통신, ⑤ 전략정보기술)에 대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의 확대를 촉구함.
- 또한 러시아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한국 투자를 요청함.

4. 한・러 정상회담과 '야로슬라블 포럼'

가. 한・러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 이명박 대통령은 모스크바 도착 이튿날 야로슬라블로 이동하여 '세계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이전에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음.

- 러시아 언론들은 이 정상회담을 포럼의 가장 중요한 행사들 중 하나로 평가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포럼초청에 응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이를 양국 간 발전되고 있는 완전한 선린관계의 징표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음.

- 이 대통령도 수교 20주년 되는 해에, 특히 야로슬라블시 창건 1,000주년 기념 행사일에 초청받은 것에 감사를 표시함.
- 또한 양국 관계가 단기간에 전면적 협력 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함.

○ 한・러 정상은 에너지・자원,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러시아 경제 현대화, 서울 G20 정상회의 등 양국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음.

- 한국의 러시아산 가스 도입과 관련,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공급방식(PNG, CNG, LNG 등)을 확정키로 합의함.
- 이명박 대통령은 극동 지역의 조선소 건설 및 상트 페테르부르

크 자동차 협력사업에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함.

-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및 러시아의 경제현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긴밀히 협의키로 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Business Summit에서 한 회의를 맡아달라는 이 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함.

○ 양국 정상은 군사기술 및 기초응용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 문제에도 의견을 같이 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기술자들의 체류비자 연장문제를 제기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을 약속함.

○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은 '3대(평화·경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성과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강조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하는 한편, 남북문제에 대한 당사자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함.

○ 또한 양국 정상은 러시아도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G8 정상회의 공동성명 및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협조한 점을 평가했음.

○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음.

-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청와대와 크레믈린 외교안보 관계자 간의 수시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함.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

나. '야로슬라블 포럼'의 주요 내용

○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은 '현대국가: 민주주의의 기준과 효율성의 척도'라는 주제 하에 이틀간 개최되었음.

- 첫째 날(9.9)에는 개회식과 주제별 4개 회의 및 종합토론이 개최됨.
- 4개 회의주제는 ① 기술 현대화의 도구로서 국가, ② 민주주의 기준과 다양한 민주주의 경험, ③ 새로운 도전들과 국제법의 개념, ④ 세계안보의 지역적 체계임.
- 종합토론의 주제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NATO에 제의하고 있는 새로운 유럽안보조약임.
- 둘째 날(9.10)은 전체회의로서 정상 연설 및 주제별 회의결과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이 행해짐.

○ 이 포럼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베를루스코니(Berlusconi) 이탈리아 총리와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칼람(Kalam) 전 인도 대통령, 음베키(Mbeki) 전 남아공 대통령 등 550여명이 참석하였음.

(1)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연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포럼 둘째 날 전체회의에서 러시아내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표명하면서 러시아 민주주의와 21세기 민주주의의 보편적 기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음.

-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우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석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공정하고 매우 편향된 평가로 간주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음.

- 러시아는 아직 젊고, 미성숙하며, 불완전하고 경험이 없는 국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함.
-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치방식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1세기 국가들에 의해 충족되어야 할 기준과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표준에 대한 그의 견해를 표현했음.

-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5개 필요조건을 설명함.

○ 첫째, 인간의 가치와 이상에 대한 법적 이행

- 이러한 가치들을 법이라는 실질적인 권능으로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함.

○ 둘째, 첨단의 기술발전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정부의 능력
- 경제현대화와 기술생산을 현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우선순위라고 강조함.
- 러시아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제공했던 지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감사함.

○ 셋째, 범죄단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민주국가의 능력
- 범죄요인들의 제거를 민주사회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함.

○ 넷째, 매우 높은 수준의 문화와 교육, 의사소통 수단들과 정보 교환

○ 다섯째, 자신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시민들의 개인적 확신
- 빈곤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위협들 중 하나라고 강조함.

○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외국 정치분석가들과의 토론에서 러시아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때때로 실수가 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정치와 경제 노선 이외에 다른 대안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고르바초프가 현대화에 좀 더 조심스런 접근법을 택했다면 오늘날의 러시아가 중국과 같은 경제적 번영과 구소련 영토 내에서의 안정된 정치체제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나 소련 붕괴로 발전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함.
- 중국 모델은 역사적, 경제적 이유들과 사고방식의 문제로 러시아에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함.
- 이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푸틴 총리와 함께 쌍두체제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 경제 노선을 정당화하는 한편, 현 정책들의 지속적 수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됨.

(2)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

○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전체회의(9.10)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하였음.

- 이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포럼의 주제인 '현대국가: 민주주의의 기준과 효율성의 척도'에 맞추어 국가 현대화와 민주화 및 지식기반 산업발전 등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한국 대통령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했기 때문임.

○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성공의 원동력,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과제, 한국의 과제와 선진화, 지구 운명공동체, 러시아의 잠재력과 가능성, 미래지향적 한·러 관계 등에 관해 설명하였음.

○ 첫째, 한국 성공의 원동력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개방과 자유의 원칙, '선 정부주도 경제개발, 후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자유무역 지향과 다자통상체제 적극 참여 등으로 설명했음.

- 경제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을 교육을 통한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축적, 테크노크라트와 산업역군의 경제성장 주도라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시민의식 제고와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했음을 강조함.

○ 둘째,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과제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가운영, 건강한 시민사회 및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비로 제시하였음.

○ 셋째,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로 발생된 부작용을 치유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한 단계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음.

- 선진화의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함.

○ 넷째, 경제・안보・환경 등의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고 책임도 함께 공유할 것을 촉구했음.

-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것을 요구함.
- 북한이 개방과 협력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할 것과 남・북・러 3각 경협을 희망함.

○ 다섯째, 러시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21세기 러시아가 정부주도의 발전을 통해 새로이 도약하기를 기대하였음.

- 과학기술과 문학・음악 등 예술 분야, 높은 지적 수준,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러시아의 큰 잠재력으로 평가함.
- '2020 장기 사회경제발전 개념'과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국가 현대화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함.

○ 여섯째, 한국이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미래지향적인 21세기 한・러 관계를 구상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음.

-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첨단과학, 우주공학, 에너지와 자원, 러시아의 원천 과학기술과 한국의 산업화 기술

결합,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철도・도로・항만 등 수송 인프라 공동 건설, TSR-TKR 연결 등을 제시함.

-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세계적 차원으로의 확대와 한・러 정례 대화채널의 격상을 제안함.
- 세계적 차원의 협력 분야를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등으로 제시함.

5. 평가

○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선진화 비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

- 민주주의와 현대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러시아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교육, 시민의식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임.
- 경제현대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을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큼.

○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고위인사들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음.

- 푸틴 총리와는 에너지·자원, 시베리아 극동 개발 및 교역·투자, 자동차, 과학기술, TKR-TSR과 가스관 연결 등의 문제를 긴밀히 논의함.
- 러시아의 유력한 경제인 12명과 간담회에서는 경제현대화 5대 분야(① 에너지 효율화, ② 원자력, ③ 의료기기·기술, ④ 우주·통신, ⑤ 전략정보기술)에서의 실질 협력을 당부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자원, 시베리아 극동 개발, 러시아산 가스 도입, 조선소 건설, 자동차 산업 지원, G20 정상회의 준비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함.

○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게 되었음.

-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6자회담 재개 시 성과 있는 회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방지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함.

○ 포럼 개최 기간 중 한국이 경제기적을 달성한 국가와 현재 세계경제의 선도국가로서 러시아 언론들에 집중 소개됨으로써 포럼의제들 중 러시아에 가장 광범한 영향력을 미쳤음.
- 특히 러시아 언론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중심에는 실물경제 전문가인 이 대통령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보도함(이즈베스티야, 9.9).
- 이와 같은 러시아 언론보도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11.11~12) 개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명박 대통령의 금번 방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2012년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푸틴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과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양국 정상회담은 일본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2008.7),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2008.9), 이탈리아 라퀼라 G8 확대정상회의(2009.7)에 이어 4번째임.

○ 상기와 같은 성과들로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실질적 이행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청와대와 크레믈린 외교안보 관계자 간의 수시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함.

6. 정책적 고려사항

○ 우리 정부의 대통령과 고위 인사 및 재계 CEO들은 대러 투자 활성화와 시장 확대 및 러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과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최우선적 국정목표인 현대화 추진,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유치, 국가위상 강화 등을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과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을 2대 국제포럼으로 정착시킬 전망임.
- 특히 러시아 정부는 야로슬라블 포럼을 정치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임.

○ 세계경제위기로 악화되었던 러시아 경제가 다시 회복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에너지・자원・과학기술 협력,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 참여 등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러시아 경제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7% 성장을 해오다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7.9%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이후 연평균 3% 대의 성장이 예상됨.
-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러시아가 원유, 천연가스, 목재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했던 경제성장으로부터 탈피하여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과 수출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우리 정부는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푸틴 총리 및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러시아 정부가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해야 할 것임.

- 양국 외교안보 관계자 간의 수시 전략대화 채널 구축, 군사기술 및 기초응용 기술 분야 협력 증대, 한국 기업인들의 90일 이상 연속 체류, 시베리아산 호랑이 3마리 기증 등의 문제임.
- 이명박 대통령이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안했던 한·러 정례 대화 채널의 격상에 대한 러시아 측의 긍정적 응답을 요구함.

○ 한·러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외교안보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2010.7.9)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정부는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와 같은 양국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청와대와 크레믈린 외교안보 관계자 간의 수시 전략대화 채널을 신속히 구축해야 함.

○ 우리 정부는 금번 대통령의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을 통해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도출한 실무 정상회담 형식을 향후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에 공식적인 외교의전을 간소화한 채 2박 3일 간의 방러 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남·북·러 3각 경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푸틴 총리가 2012년 대선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

비책을 지금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여론기금」(Russian Public Opinion Fund)의 여론조사(2010.8)에 의하면 푸틴 총리의 인기도는 64%,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인기도는 57%임.
- 푸틴 총리가 재집권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TSR-TKR 연결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큼.

○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과 반관반민의 1.5 트랙(track)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현대화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러시아에서는 정치가와 전문가들 사이에 민주주의와 현대화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에서 은퇴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러시아내에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러시아극동문제연구소」, 「러시아동방학연구소」, 「세계경제 및 국제문제연구소」 등에서 동아시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젊은 학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함.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러시아에서 한반도문제를 연구하는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이나 젊은 학자들에게 장학금·지원금 등의 제공을 확대하도록 함.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 드 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10-06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화 : 02-901-2529
팩스 : 02-901-2545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0년 9월
발행일 2010년 9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울 강북구 4 · 19길 275
전화 : 900-4300(代)